

LUX HUMANITAS

VOL. 10. 2012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 03 학문과 평화의 큰 스승, 영면에 들어가다
- 04 문화세계 창조를 꿈꾸었던 '교육의 선구자'
- 08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선 '실천적 사상가'
- 10 세계평화의 날 제정 끝어낸 '평화의 창조자'

FOCUS

- 12 경희의 '가지 않은 길', 미래대학의 길
- 14 '대전환', 경희의 미래 의료의 미래
- 15 새 단장한 청운관 식당 '친환경 복지' 업그레이드
- 16 21세기 명문대학을 향한 경희의 로드맵

TODAY

- 17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 '디지털 전문행정' 구현
- 18 미래의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19 "세계적 명문대학 조건은 브랜드 전략, 내부 혁신"
- 20 경희,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PEOPLE

- 21 경희 인물동정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청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ISSN 2005-716X

15

KYUNG HEE UNIVERSITY



학문과 평화의 큰 스승, 영면에 들어가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91세 일기로 2012년 2월 18일 타계
2월 23일 영결식 엄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선영에 안장



2012년 2월 18일~23일 '경희 학원장'으로 치러진 미원 조영식 박사 장례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6,000여 명의 조문객이 평화의 전당 분향소를 찾았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가 2012년 2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선영에서 영면에 들었다. 향년 91세 나이로 2월 18일 오후 5시 13분 경희의료원에서 숙환으로 타계한 고인의 장례는 '경희 학원장'으로 치러졌다.

장례 기간 중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는 이명박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정계 인사들 비롯해 김용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김종광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등 대학교육계 인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계 인사,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등 추모객 6,000여 명의 조문이 이어졌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루이스 아리아스-로메로 주한 스페인 대사, 가마타 가오루 와세다대학교 총장, 존 제인스키 미주리대학교 총장 등은 추모 서신을 보내왔다.

영결식은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유족 및 각계 인사, 교수, 직원,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전당에서 엄수됐다. 장례위원장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의 영결사 낭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애도 속에 거행됐다. 김용철 이사장은 "조영식 학원장은 개인의 영달보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교육을 통해 인류 평화를 구현해온 고인의 뜻을 전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고, 세계대학총장회(IAUP)를 주도해 한국 교육의 국제화에 기여한 고인의 발자취는 한국 교육사의 거목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며 "고인의 위업을 밑거름 삼아 경희대학교가 더 큰 도약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조사는 김여수 전 미래문명원장이 대독했다.

공영일 전 경희대 총장, 이봉관 경희대 총동문회장, 박지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용필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조사 낭독에 이어 조영식 박사의 일생을 회고하는 추모 영상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가 상영됐다.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이 죽더라도 '세계 명문대학은 반드시 만들어놓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다"는 그 마음에 여러분도 동참해주면서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라는 고인의 유성이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영결식은 정호승 시인의 조시 '지금은 천국에 목련화가 피어나는 시간' 낭독, 조가, 헌화 및 분향, 발인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이 끝난 뒤 운구 행렬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경희초등학교, 경희여자중·고등학교를 순회했다. 교육의 선구자, 실천적 사상가, 평화의 창조자 미원 조영식 박사의 유해는 선영에 잠들었지만, 그가 남겨준 경희정신은 경희동산을 감싸고 있다.

문화세계 창조를 꿈꾸었던 ‘교육의 선구자’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 인수, 경희 발전의 초석 다져
한국 최초의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학문과 평화의 전당’ 건설



조영식 박사의 마스터플랜에서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도서관 건립이었다. 1968년 동양 최대 규모로 완공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사진)은 15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에 들어 서면 약 150미터 전방에 잘 가꾸어진 숲과 어우러진 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경희의 창학이념을 새겨 넣은 교시탑(校是塔)이다. 1955년 7월 24일 건립된 이 탑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미터 높이의 교시탑은 미원 조영식 박사의 삶과 경희의 역사를 상징하듯 우뚝 솟아 있다.

목사의 길 희망했던 소년 조영식

1921년 11월 22일 금 산지로 유명한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난 소년 조영식의 어릴 적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 신음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는 우리 민족이 신의 보살핌 아래 구원받기를 소망했다.

광산을 경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소년 조영식은 늘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몸이 허약해 유년시절 건강 악화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체험하기도 했다. 목회 활동을 위해서는 강건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해 복싱, 체조, 달리기 등으로 신체를 단련했다.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체육대학에 입학한 청년 조영식은 1943년 10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잠시 귀국해 평생의 반려 오정명(吳貞明)과 결혼했다. 태평양전쟁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신혼생활 3개월째인 1944년 1월, 그는 평양에 있는 일본군 48공병부대에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됐다.

훈련소에서 그는 ‘일제의 총알받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훈련소 탈출을 결심하고 조선인 학도병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생사를 건 모험이었다. 그러나 거사 직전 정보가 유출됐다. 악명 높은 일본군 헌병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다.

그것이 1945년 1월의 ‘평양 학도병 의거 모의사건’이다.

언제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미래를 계획했다. “비록 혹독한 영창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나 살아남을지도 모르니 이렇게 무의미하게 소일만 하지 말고 무언가 미래를 위해 일할 준비를 하자”고 함께 수감된 동지들에게 제안했다. 읽을 책이 한 권도 없었으므로 그 ‘준비’는 각자 배운 지식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토론학습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정치계 입문

1945년 8월 15일, 전 민족이 염원하던 해방의 날을 맞았다. 이듬해 청년 조영식은 고향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다. 남이건 북이건 조국과 민족이 처한 현실은 참담했다. 국민경제의 60%를 차지하던 농업 기반은 일제의 수탈에 의

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있었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45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률이 73.5%에 달했다. 1948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민주주의 경험이 없어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당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청년 조영식은 안정된 교사 생활을 내려놓고 서울대 법과대학에 편입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초한다'는 생각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재학 시절 그는 '1만 시간 독서 계획'을 세울 정도로 공부에 열심이었다.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는 독서량이었다. 1948년, 법학도 조영식은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첫 저서 <민주주의의 자유론>을 펴냈다.

대학을 졸업한 1950년 여름 6·25전쟁이 발발했다. 그는 정계에 입문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중 하나인 '공화민정회' 조사국장 겸 법제사법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달리 현실의 정치는 청년 조영식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러던 때, 부산으로 피난해 있던 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해달라는 것이었다.

“쇠는 때릴수록 더 강해진다”

신홍초급대학은 1946년 설립된 배영대학관과 1947년 설립된 신홍전문학관이 합병, 1949년 가인가로 설립된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전쟁 중에는 졸업생조차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도 대지도 없는 '천막 대학'이 가진 것이라곤 1,500만 원의 은행 빚과 교직원 의 밀린 월급뿐이었다.

극심한 국정 혼란과 정치가들의 저열함, 혼탁한 정치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는 좋은 정치로 국민을 행복하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같은 신념이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며 정치가의 길을 버리고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도록 그를 이끌었다.

1951년, 조영식 박사는 학교를 인수한

지 2주일 만에 부산역 바로 맞은편 동광동 5가 3번지 언덕 위에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사재 1,800만 원을 들여 본부 건물 1동과 5개의 강의실을 갖춘 교사 건물 2동을 신축했다.

1952년 12월 9일 신홍초급대학은 정규 4년제 대학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예상치 못했던 화재가 발생했다. 공들여 지은 교사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신홍대학은 최대 위기에 몰렸다. 주변에서는 “이제 신홍대학과 조영식 씨는 망했다”며 수군거렸다.

조영식 박사는 좌절을 몰랐다. 밤낮없이 노력하며 학교 재건에 나섰다. 부산 동대신동 2가 87번지의 땅 700평을 구입하고 착공 2개월 만인 3월 20일 새 교사의 준공식을 가졌다.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지은 교사 정문에는 폭 70센티미터의 목판 3개를 달아 그 위에 선명한 페인트 글씨로 교훈을 써넣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조영식 박사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잃기는커녕 더 큰 도전정신으로 난관을 헤치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단련했다. 당시 그는 “불에 구우면 구울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쇠는 더 굳어지고 강해진다”는 말을 되뇌곤 했다.

한국 최초의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간의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자 부산으로 피난해 있던 대학들도 저마다 짐을 꾸리느라 바빴다. 조영식 박사도 학교 이전을 결심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서울 곳곳을 누비며 땅을 물색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곳이 현재 서울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는 휘경동 천장산(현재의 고황산) 기슭이었다.

당시 이 일대는 지금처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 일제시대에 남산 신궁(神宮)을 짓기 위해 석재를 채취하던 채석장이 방치돼 있었으며, 주변에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산골짜기였다.

1953년 10월 12일 고황산 밑에 30만 평의 교지를 확보한 뒤 조영식 박사는 한 달



사진 맨 위에서부터 1953년 신축된 부산 동대신동 교사, 경희의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현판이 걸린 동대신동 교사 정문, 1956년 공중에서 촬영한 서울캠퍼스의 옛 모습, 조영식 박사의 마스터플랜에 의한 조감도, 건립 중인 교시탑.

동안 서울에 머물며 날마다 산 중턱에 올라 지세를 살피고 구상을 다듬었다. 어느 장소에 어떤 건물을 세울지, 건축 양식은 무엇으로 할지, 녹지는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각종 건축 서적을 독파하며 혼자 힘으로 설계도를 그렸다. 조영식 박사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한 교육자이자 기획자, 설계자, 건축가였다.

종합대학 승격과 교명 변경

그해 11월 조영식 박사가 교직원들에게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을 때 모두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여겼다. 본관 석조전을 포함한 큰 공사에만 3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높이 16.3미터, 지름 1.36미터의 원형 돌기둥 14개가 떠받치고 있는 코린트 양식의 본관 중앙부는 1956년 7월 30일, 착공 2년 8개월 만에 준공됐다. 조영식 박사의 진두지휘 아래 수많은 석공들이 고항산에서 채취된 화강암을 일일이 다듬어 세운 건물이 오늘날 경희를 상징하는 본관 석조전이다.

마스터플랜 5개년 계획에는 12미터 높이의 아치형 정문(등용문), 동양 최대 규모의 중앙도서관, 400미터 정구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과 체육대학관, 본관 앞 정원과 분수대,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진 숲과 계곡과 호수 등 현재 서울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건축물과 자연경관 조성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조영식 박사의 마스터플랜은 100년 후 미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꿈의 청사진이었다.

학교 이전 이듬해인 1955년 2월 28일, 경희대는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체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그해 3월 1일 조영식 박사는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 후 마스터플랜에 의한 캠퍼스 건설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 창조적 대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이뤄졌다. 1955년 5월 문예, 학술, 체육, 예능 분야에서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화상 제도를 도입했으며, 대학신문(현재의 대학주보)을 창간해 학내 언론을 활성화했다. 1956년 10월에는 노천극장에서 국내 대학축제의 효시인 대학제를 개최했다.

1960년 3월 1일, 그동안 다져온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이름을 경희대학교로 개명했다. '경희'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문예 부흥을 이뤘던 영·정조 시대의 정궁(正宮) 경희궁에서 따왔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도 걸맞은 선택이었다. 경희의 1960년대는 비약적 성장의 10년이었다.

세계대학총장회(IAUP) 서울대회

경희의 세계화는 조영식 박사의 꿈이었던 구성원의 소망이었다. 1968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AUP) 서울대회는 그 꿈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조영식 박사 주도로 1965년 6월 29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창설된 세계 지성의 모임이다. 조영식 박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지성인의 사명과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회 폐막에 앞서 3년 후 치러질 2차 대회 개최국과 주관교 결정을 놓고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생 약소국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끈질긴 노력으로 2차 대회 유치가 성공했다.

대회 개막식에 맞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이 준공됐다. 개막식장은 원형열람실에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세계 35개국 총장 105명을 비롯한 참가자 156명,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외교사절 등 국내외 귀빈 300여 명, 국내외 보도진 20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대학총장회 서울대회는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불어넣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한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다. 이 행사는 1968년 한국 정부의 10대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됐다.

경희의료원 개원과 '제3의학' 창안

197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이 착공 6년 5개월 만에 준공됐다. 경희학원의 건설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30억 원)과 시간이 투입된 공사였다. 당시 국내의 유명 대학병원들은 보통 350~500병상 정도였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1,000병상 규모의



사진 왼쪽부터 1966년 설립된 의과대학 정문, 1968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서울대회 개최에 맞춰 완공된 중앙도서관, 1969년 경희인상 제막식.



사진 왼쪽부터 1971년 10월 준공된 경희의료원 개원식, 1968년의 IAUP 서울대회 개막식, 학생들과 소통하는 고 조영식 박사.

동양 최대 병원을 원했다. 그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장차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질병을 퇴치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병원 규모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경희의료원 건설에 쏟은 열정은 상상을 넘는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서적을 구해서 읽는 한편, 미국·일본·유럽의 병원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영식 박사는 하루 세 번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18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 한의과대학병원 등 3개 병원으로 구성된 경희의료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경희의료원 설립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1965년 경희대 의과대학 설립의 모태가 된 동양의학대학을 인수하기에 앞서 조영식 박사는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등 동양의학 고전을 섭렵했다. 이때 조영식 박사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켜 '제3의학'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제3의학'을 창안하겠다는 경희의 의지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옛 동서신의학병원) 건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1년 4월 25일 기공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제3의학을 완성해 선진국 어느 병원 못지않은 21세기 최고의 병원으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99년 전 12권의 <동양의

학대사전>을 간행한 것도 제3의학 창출에 대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었다.

경희의 국제적 위상 확립

경희의 국제적 위상이 하나의 정점을 이룬 것은 1975년의 '보스턴 선언'이었다. 그 해 11월 11일부터 3일 동안 보스턴에서는 세계대학총장회 제4차 대회와 미국 주립대학총장학회(AASCU) 연차대회가 합동으로 개최됐다. 기조연설에서 조영식 박사는 "오늘의 대학은 정신적 심연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건져내야 한다"면서 "정신과 물질의 불균형에서 오는 여러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내용은 대회의 결정체인 '보스턴 선언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제캠퍼스 건립과 경희의 재도약

1978년 3월 고향재단 이사회는 분교 설립을 결정하고 전담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영식 박사는 신갈호수 부근의 넓은 터위에 미래지향적 캠퍼스를 건설하는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었다. 1979년 5월 2일 국제캠퍼스 첫 건물의 기공식이 거행됐다. 당시 조영식 박사는 <대학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제캠퍼스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번 수원대학(국제캠퍼스)을 설립한 것은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한 것이다. 수원대학은 특색 있는 학과를 주축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가가 시급히 요청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그 목표를 두겠다."

1980년 이후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기초과학·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응용과학·국제학·현대예술·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순차적인 편제 개편이 진행됐다. 국제캠퍼스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독립된 캠퍼스로 정식 승인됐다. 이로써 '하나의 경희'는 완전한 통합 체제를 갖추게 됐다.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우뚝 선 경희

1999년 10월 개교 50주년을 맞아 경희대학교는 서울NGO세계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경희는 또 하나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 평화의 전당이 준공된 것이다. 평화의 전당은 동양 최대의 문화예술 공간이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희." 조영식 박사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직접 작성해서 제안한 슬로건이다. 교육을 통해 문화세계를 창조하겠다는 조영식 박사의 신념과 열정은 오늘날 경희학원을 이루고 있는 풀 한 포기, 돌 하나, 건물 하나, 그리고 경희 구성원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의 미래지향적 도전정신과 헌신적 노력은 경희의 지나온 역사 속에 경이로운 발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2009년 5월 18일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의 실천을 통해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미원 조영식 박사의 뜻이 어받아 경희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선 ‘실천적 사상가’

1960년대 잘살기운동 전개, 새마을운동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 방법론 제시
 밝은사회운동·인류사회재건운동 통해 경희의 사회공헌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경희 캠퍼스에는 ‘경희정신의 상징’이 곳곳에 담겨 있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의 스테인드글래스에는 ‘오토피아 정신’이 아로새겨져 있다(사진 오른쪽 아래 부분).

1951년 조영식 박사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포성과 처절한 아우성 속에서 두 번째 저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겪었다.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이다. 일제의 수탈과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며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뼈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책의 제목은 <문화세계의 창조>로 정했다.

농촌계몽운동에서 발전한 잘살기운동

<문화세계의 창조>는 인간의 보편의지를 옹호하는 저술이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것은 동물적 힘의 논리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자연규범이었다. 이에 맞서, 조영식 박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편의지에 입각한 문화규범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평화공동체를 건설하자고 주장했

다. 이것이 ‘문화세계 창조론’의 골격이다. 조영식 박사는 사상가이자 현실 개선의지를 지닌 실천가였다. ‘실천적 사상가’로서 그의 면모는 경희의 교육철학에 잘 나타나 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학술기관이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대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은 1950년대부터 확립된 경희의 오랜 전통이다.

조국을 가난과 무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조영식 박사는 경희를 의식혁명, 생활혁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1956년부터 교직원과 학생, 졸업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다. 도시에서는 야학을 열어 글을 가르쳤다. 산림 훼손으로 전국의 산이 민둥산으로 변하자 산림녹화운동에도 매진했다.

1965년 10월 12일, 경희학원제에서 조영식 박사는 잘살기운동을 선언하고 구성

원의 참여를 촉구했다. 조영식 박사가 제창한 잘살기운동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남달랐다. 당시에 제출된 대부분의 국가발전론은 선진국 모델을 추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발전 모델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데다 자원이 빈약한 한국에 적용될 수 없었다. 조영식 박사는 ‘인간 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앞으로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받은 인적 자원, 즉 생산성 높은 인간을 키우는 일이다. 잘살아야겠다는 자각마저도 교육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신을 계발하고 일깨우는 길만이 우리가 잘사는 길이다. 한국의 잠재력인 자원은 인력 자원이고, 인력 자원은 교육에 의해서만 개발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1965년 11월 조영식 박사는 새로운 저서 <우리도 잘살 수 있다>를 출간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무렵 조영식 박사는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다. <우리도 잘살 수 있다>를 세 번이나 통독했다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세계 각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경희가 전개하고 있는 잘살기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뒷날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쉽게 말하자면 잘살기운동이다”라고 말했다. 경희의 잘살기운동은 한국 근대화를 견인한 새마을운동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류사회의 재건〉 출간을 통해
밝은사회운동의 사상적 기반 제공**

밝은사회운동(GCS)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은 1975년에 발간된 저서 〈인류사회의 재건〉이었다. GCS는 선의(Goodwill), 협동(Cooperation), 봉사·기여(Service)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밝은사회운동의 궁극 목표인 ‘지구공동사회’를 의미하기도 했다.

밝은사회운동은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3대 원리, 즉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게(humanly Rewarding)”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희를 대표하는 슬로건 중 하나가 됐다. 경희대학교는 매년 가을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하고 있다.

〈인류사회의 재건〉을 한창 준비하던 중, 조영식 박사는 1974년 8월 27일 미국 애

틀랜타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류학자대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 그는 저서 내용을 요약해 ‘교육을 통한 인류사회의 재건’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인간성을 회복해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인간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의 연설은 대회 마지막 날 ‘인류사회의 신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선언은 세계 복지사회 건설의 이정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인류학회는 그 공로를 인정해 조영식 박사에게 ‘인류 최고 영예의 장’을 수여했다. 이듬해 세계대학총장회(IAUP)는 그 정신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학술대상을 수여했다.

밝은사회운동은 처음부터 국제적 사회운동으로 계획됐다. 밝은사회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경희는 교내외에 밝은사회클럽(GCS Club)을 결성해나갔다. 1978년까지 조직된 국내 밝은사회클럽은 73개에 달했다. 이를 주축으로 1979년 GCS International(밝은사회국제클럽 국제본부)이 창립됐다. ‘재단법인 국제밝은사회재단’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세계평화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해 ‘오토피아 평화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1회 수상자는 부트로스-갈리, 제2회 수상자는 하비에르 페레즈 드케야르 전 UN사무총장이었다. 제4회 때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1979년 조영식 박사는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명저 <오토피아>를 발표했다. 그

가 주창한 오토피아(Oughtopia)는 지구상에 당연히 있어야 하고(Ought to be)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Ought to do) 문화세계, 곧 인간 중심의 지구공동사회(Global Common Society)이다.

오토피아 사상과 인류사회재건운동

오토피아를 향한 경희의 지구적 실천은 인류사회재건운동으로 나타났다. 1979년 10월 28일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로마클럽과 공동으로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외 학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영식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의 전망과 오토피아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역설했다.

인류사회재건운동이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1998년 9월에 열린 세계평화의 날 1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였다. 회의 주제는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이었다. 조영식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문명의 발달 과정과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고찰한 뒤 새천년을 위한 ‘지구공동사회 대헌장’(Magna Carta of Global Common Society) 제정을 제안했다. 하비에르 페레즈 드케야르 전 UN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다. 총 5개 항목으로 이뤄진 ‘지구공동사회 대헌장’은 <오토피아>에서 제시된 5대 과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영식 박사는 21세기 미래사회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예견하고 문화세계 창조에 앞장선 선구적 사상가였다.



사진 왼쪽부터 인류사회재건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고 조영식 박사,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농촌계몽운동, 경희의료원의 무료 의료봉사.

세계평화의 날 제정 끌어낸 ‘평화의 창조자’

1981년 IAUP 총회에서 조영식 박사가 최초 제안, 제36차 UN 총회 결의
〈세계평화대백과사전〉 발간하고, 1999 서울 NGO 세계대회 개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정문(사진)에는 ‘NEO RENAISSANC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네오르네상스 운동은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이다.

2011년 9월 1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과 뉴욕 UN본부에서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가 동시 개최됐다. UNAI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고등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을 목표로 설립한 UN공보처 산하 기구다. UN 웹캐스트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조인원 경희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시민교육과 지구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기금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UNAI-경희 국제회의가 끝난 뒤 조인원 총장을 비롯한 뉴욕 파견단과 미국에 거주하는 경희대 동문들은 회의 성공을 축하하는 만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동문들은 조영식 박사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당시 그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뉴욕 파견단 숙소는 UN본부와 길 하나

를 사이에 둔 밀레니엄플라자호텔이었다. 그곳은 조영식 박사와도 인연이 깊은 장소였다. UN이 세계평화의 날 제정안을 승인하기까지 미원 조영식 박사는 회갑잔치도 포기한 채 그곳에 3개월 이상 머물며 세계 각국의 대사와 UN 관계자들을 수없이 만나고 설득했다.

코스타리카 도움으로 UN에 안건 상정

1981년 7월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6차 대회에서 조영식 박사는 “UN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이를 받아들여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 조영식 박사는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카라조 오디오 대통령의 도움을 얻어 안건을 제출하는 데 성공했다.

1981년 11월 30일, 제36차 UN총회는 1982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정한다고 의결했다. 또, UN은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했다. 그해 1월 1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서로 상대국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서 냉전과 핵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때 벌어진 기념비적 평화 이벤트였다.

1983년 평화복지대학원 설립

‘평화의 창조자’ 조영식 박사는 현대사의 흐름을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시킨 숨은 공로자였다. 1994년 경희대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만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는 없었을 것”이라며 경희가 주도해온 평화운동에 찬사를 보냈다.

평화를 위한 경희의 의지는 1983년 평화

북지대학원(광릉캠퍼스) 설립으로 이어졌다. 조영식 박사는 평화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깊이와 실천 의지를 겸비한 '평화의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평화복지대학원은 모든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 장학제도를 도입했다.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 조영식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영어 공부에 영어사전이 필요하듯이 평화학을 교육하려면 그 방면의 사전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영식 박사는 세계 최초의 평화 관련 백과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심하고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명예편집장으로 초빙했다. 40여 개국의 세계적 석학 350여 명이 원고 집필에 참여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전 4권의 영문판 <세계평화대백과사전>이 1987년 세상에 나왔다. 1999년에는 전 8권의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증보·개정판을 발간했다.

1999년 서울NGO세계대회 개최

1997년 10월 조영식 박사는 UN의 초청을 받아 UN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세계평화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때 지속적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올 21세기에는 정부 못지않게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후 조영식 박사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NGO세계대회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 UN은 경희대학교 주도하에 서울에서 NGO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했다.

마침내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은 1999년 10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서울NGO세계대회가 개막됐다.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라는 구호 아래 ‘21세기 NGO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 107개국에서 1,360개의 NGO를 대표하는 활동가와 시민 1만 3,000여 명이 참가했다. 6일 동안의 진지한 토론을 거친 뒤 전 세계 NGO 대표들은 조영식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밀레니엄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인류의 미래 비전과 함

께, 각국 정부와 UN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각 실천해야 할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했다. 1999년은 경희의 평화운동, 나아가 세계 평화운동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에 남는 해로 기록된다.

네오르네상스 운동 전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사색의 광장(Pensees Plaza)에는 2개의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다. 그 몸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제2 르네상스 햇불 들어 온 누리 밝히는 등불 켜자.’ 사색의 광장을 지구공동사회를 위한 제2 르네상스 운동의 발원지로 삼겠다는 조영식 박사의 의지가 담긴 오벨리스크다.

그는 2001년 9월 28일 국제캠퍼스 정문인 새천년기념탑 준공식에서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인류 화합과 평화의 바탕 위에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을 통해 제2 르네상스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새로운 운동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영식 박사는 1979년 6개 국어로 출판된 저서 <오토피아>에서 제2 르네상스운동을 제창한 바 있다. “제2의 르네상스, 즉 네오르네상스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단순히 합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 바람직하고 실현이 가능한 당위적인 사회(오토피아)의 건설이란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인간사회, 지성이 넘치는 문화적인 복지사회, 그리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네오르네상스 정신에는 교육자로서, 사상가로서, 평화운동가로서 성찰하고 실천해 온 조영식 박사의 전 생애가 담겨 있다. 그 정신은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해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겠다는 경희의 비전과 연결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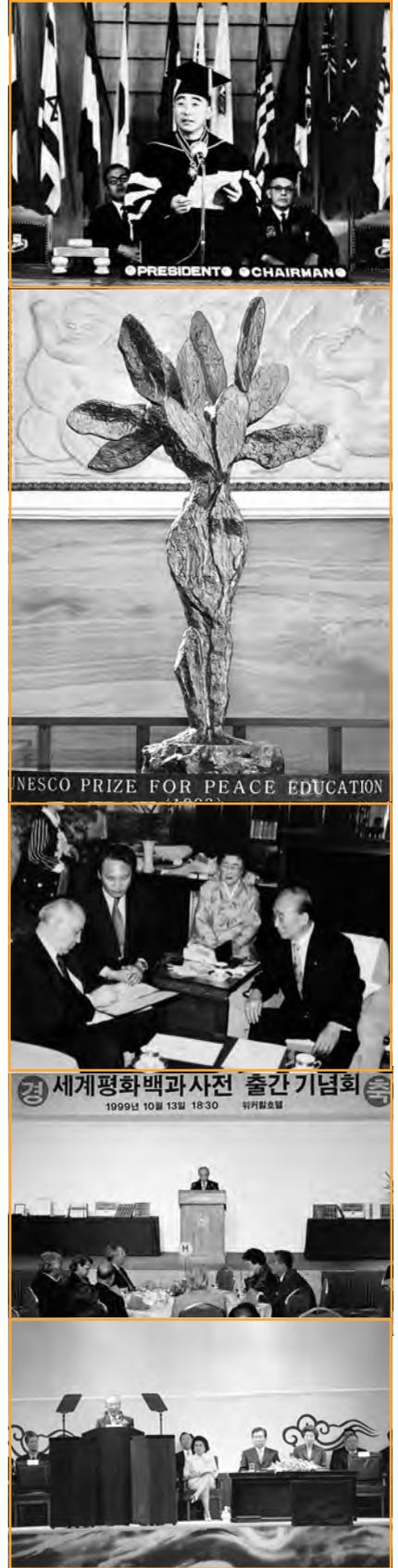


사진 맨 위부터 세계대학총장회 총회에서 연설하는 조영식 박사,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이 수상한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경희대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환담하는 조영식 박사, <세계평화백과사전> 증보·개정판 출간 기념회, 1999년 개최된 서울 NGO 세계대회.

경희의 ‘가지 않은 길’, 미래대학의 길

1학기 합동교무위원 연찬회, 3월 8일~9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
미래협약·미래전략 토대, “2012년은 세계적 명문대학 도약의 원년”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는 '경희구성원 미래협약'과 '미래전략 - Global Eminence 2020'을 두 축으로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경희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3월 8일~9일 강원도 양양에서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열렸다. ‘가지 않은 길(The Road Ahead, Empowering Global Eminence)’을 주제로 1박 2일 동안 진행된 연찬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 특히 지난해 12월 체결된 ‘미래협약’과 올해 공표될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의 바탕 위에서, 경희가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자리였다.

연찬회에는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재정사업위원장, 서울·국제캠퍼스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부속기관장, 대학(원) 행정실장, 본부 부서 부처장 및 과장, 경희사이버대학 부총장 및 교무위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2월 개최된 2011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와 함께

일관성 있게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연찬회는 ‘대전환’을 주제로 큰 미래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다. 올해 연찬회는 지난해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 현황을 점검하고,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등정 루트’를 제시했다.

“구체적 전략과 선택을 만들어야”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 ‘창조의 여정-미래대학의 길’을 통해 “2011년은 미래를 선도할 대학을 만들기 위한 공감의 시기였다. 올해는 미래전략과 미래협약을 축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선택을 만들어나가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강화된 자율운영체제 하에서 전통 명문대학의 길, 창조와 변화를 통한 새로운 명문대학의 길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인원 총장은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만들 학문적 수월성은 대가(大家), 석학(碩學), 거장(巨匠)을 존중하는 양심과 긍지를 만들고, 우리 학생과 사회가 이를 존경하는 대학문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 구현을 통한 대학의 공적 실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대학 행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찬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경희 미래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연계협력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정기택 교수(총장실 정책위원)는 ‘바이오헬스융합원’ 추진 경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기택 교수는 “경희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한의학 및 의생명 관련 분야를 연계·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융합원은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아시아 최고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해 교육·연구·실천이 융합된 지구적 지식공동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재정 구조, 미국 대학 모델로 전환”

신임 재정사업위원회 최동주 위원장은 ‘Finance 21’과 ‘Space 21’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재정과 관련, 최동주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의 세계적 명문대학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 뒤,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의료 및 기금 운영 수입 비율이 높은 미국 대학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11%이며, 정부 지원은 20.1%(경희대 6.1%), 의료 수입은 24%(경희대 7.8%), 기금 운영 수입은 29.8%(경희대 1.8%)를 차지한다.

최동주 위원장은 “지적재산권 등의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마련된 대규모 기금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겠다”고 재정계획을 밝혔다. ‘Space 21’ 캠퍼스 종합개발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15학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하나의 경희’ 위한 ‘소통’이 중요

연찬회는 ‘하나의 경희’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로 마감됐다. ‘하나의 경희’라는 주제가 채택된 이유는, 지난해 8월 24일 서울·국제캠퍼스가 통합된 데 따른 행정적 요청 외에도, 경희가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구성원 및 자율기관의 공동체 의식과 문화,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라운드테이블 총평에서 조인원 총장은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조인원 총장은 “학사 행정이나 구성원의 복지와 권익은 본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지만, 소통은 기본적으로 자율기관인 단과대학 또는 학과가 앞장서야 할 문제”라면서, “다만, 각 자율기관에서 취합된 의견을 전달해주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희의 새 과제, 학술문화 재정립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핵심 전제는 학문적 권위의 재건”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대학의 학술문화’ 주제발표를 맡은 이과대학 남순건 교수는 뉴욕주립대(NYU) 사학과 김성복 교수의 한국 대학 비판론을 먼저 소개했다.

서울대 법대에서 2년 동안 연구년을 보낸 뒤 김성복 교수는 “대학에 지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수들은 학문을 논하지 않고, 고시공부와 취업에 골몰하는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순건 교수는 한국 대학의 학술문화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5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첫째 교수와 학생이 학문에 대한 관심이 적다, 둘째 단기적 연구 실적에 매달려 양적 팽창만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에너지와 시간 낭비가 많다, 넷째 진리 추구에 몰입하는 학술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대학 내에 ‘학문적 권위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훌륭한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남순건 교수는 1982년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1911~1991)의 말을 인용, 그 과정을 눈덩이 굴리는 것에 비유했다. 연구 잘하는 교수가 있으면 많은 연구비를 받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좋은 교수들이 대학에 모인다→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그 대학을 지원한다→그 결과 임계 크기(critical mass) 이상의 연구 집단이 형성된다→특정 학문 분야를 공부 또는 연구하려는 유능한 젊은이가 꼭 가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메커니즘이다.

남순건 교수는 “경희만이 갖고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지만 현재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연구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학과, 학내에서도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학술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문화 2020’을 주제로 안병진 교수(총장실 정책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안병진 교수는 “컬럼비아대학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1975)가 평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두 화두는 후마니티스(humanitas)와 경험(experience)”이라면서 “존엄성을 가진 인간들이 구성하는 탁월한 공동체를 추구해온 한나 아렌트의 철학과 사상은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 경험과의 대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큰 질문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 학술문화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안병진 교수는 “인류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문제에 관한 창조적 사상과 이론을 성취하고, 문명에 대한 열정이 녹아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영감과 모델을 제시하는 학문적 대가, 또는 거장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문적 수월성과 지구적 존엄성을 함께 추구해온 경희가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 전제는 새로운 학술문화의 정립”이라고 강조한 뒤, 21세기 학문적 권위를 모색하기 위해 제2차 글로벌에미넌스 포럼(Global Eminence Forum) 주제를 ‘대학다운 미래대학-학술문화 2020’으로 제안했다. 지난해 7월 개최된 글로벌에미넌스포럼 2011의 주제는 ‘새로운 명문의 조건’이었다.

‘대전환’, 경희의 미래 의료의 미래

2012년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연찬회, 3월 17일 개최
 ‘비전 2020’에 따른 세계적 의료기관의 개념적·실천적 토대 논의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지난 3월 17일 ‘대전환, 경희의 미래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2012년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세 계적인 의료기관을 향한 경희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구성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지난 3월 17일 ‘대전환, 경희의 미래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2012년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재정사업위원장, 미래정책위원장,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한의대학장 등 260여 명의 참석자들은 2010년 선포한 ‘비전 2020’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의료기관의 개념적·실천적 토대를 논의했다.

2012년은 ‘비전 2020’ 추진의 출발점

조인원 총장은 총평을 통해 “대학과 의료기관은 ‘문화세계의 창조, 인류의 건강증진’이라는 공적인 목표를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공적인 설립 취지와 탁월성, 진정성을 견지하면서 의료기관

내, 대학과 의료기관 간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으로 더 멋진 경희 의료기관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인사말에서 유명철 의무부총장은 “경희 의료기관의 깊은 성찰과 이해를 통해 현 위상을 파악하고 실천 의지를 공유함으로써 신뢰의 바탕 위에 모든 구성원이 동참하는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만들자”는 말로 연찬회 취지를 설명했다.

연찬회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임영진 의료원장은 “2012년은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업무 개선을 통한 효율성 강화와 합리적 성과보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비전 2020’ 추진의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최동주 재정·행정위원장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동주 위원장은 “투자심사분석을 통해 비용 최적화

를 이끌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전 2020’과 관련해서는 “차별적 진료 전문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암센터 등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의료 수익을 높이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통과 공감, 참여와 실천이 필수”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 중이다. 류경남 경영정책실장은 “신 거버넌스가 올 상반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다. 경희 의료기관이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적 명문 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 전 계열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조화와 협력으로 비전 달성에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소통, 참여와 실천’을 주제로 삼았다.

새 단장한 청운관 식당 ‘친환경 복지’ 업그레이드

도서열람실·카페·공연시설 갖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청운관 학생식당은 배식 코너가 기존의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도서열람실·카페·소형 무대까지 갖췄다.

서울캠퍼스 청운관의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이 2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3월 5일 재개장했다. 1년에 걸친 청운관 식당 리뉴얼의 키워드는 ‘친환경 복지’ 구현이다. 먼저, 양질의 식자재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구성원의 건강을 배려했다. 다음으로 공간을 재구성해 단순한 식당 개념을 탈피한 복합 식음료·생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식당 코너는 기존 3개에서 한식, 덮밥 & 비빔밥 & 볶음밥, 특식 & 직화, 양식 & 세계, 분식 & 면류 등 5개로 늘어났다. 특식 & 직화 코너에서는 철판과 뚜껑배기 요리를 제공하며, 양식 & 세계 코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을 위해 세계 요리를 선보인다. 가격대는 2,300~3,500원으로 종전과 비슷하지만, 식재료 원가 비중을 35%에서 60%로 높이며 품질 향상을 꾀했다.

식당 내부에는 식사를 위한 배식대와 테

이블 이외에도 5개의 도서열람실, 카페, 소규모 무대를 설치하고, 중정을 이용해 외부 테라스를 배치했다. 교내식당을 휴식과 면학, 소모임 등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꾸몄다. 학내 행사를 지원하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생일상 차려주기 등 각종 이벤트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운관 식당은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됐으며, 식단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희대는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 교내식당개선TF를 구성하고, 11월까지 식당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재정사업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청운관 식당 운영 계획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2012년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청운관 식당 개선사업은 학생·교수·직원 등 경희 구성원이 소통과 배려로 전 과정을 함께 만들어간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배려와 존중’의 정경대 엘리베이터

장애학생 요구 적극 수용
3월 13일 시승식 개최



정경대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에서 시설물 보강이 쉽지는 않았다. 약 1억 4,700만 원을 들여 2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학생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한 결과물이었다.

한수인(행정학과 2011) 학생은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네오르네상스전형으로 경희대에 입학했다. 지체장애 2급이다. 그러나 정경대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그가 전공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수인 학생은 입학 후 이 같은 고충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건의해왔다. 지난해에는 학교 측의 배려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청운관에서 전공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매 학기 다른 건물에 전공 강의실을 배정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학생지원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소속 학과 건물에서 전공 수업 받기를 원하는 한수인 학생의 희망과 권리를 존중해 정경대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6일 공사를 시작해 올해 2월 29일 설치가 완료됐다.

지난 3월 13일 엘리베이터 시승식에서 김정만 서울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정경대학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경희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한수인 학생은 5층에 위치한 행정학과 학생회실을 방문해 선후배 및 동기들과 인사를 나눴다. 시승식 후 정경대 학장실에 마련된 간담회에서 한수인 학생의 부친 한태섭 씨는 딸을 배려해준 경희대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1세기 명문대학을 향한 경희의 로드맵

미래정책원 출범, 전략팀·제도인재팀·평가팀 본격 활동에 착수
 미래협약·미래전략 바탕으로 발전전략 실행 프로세스 구축



3월 8일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미래정책원 우응제 원장은 "2012년은 세계적 명문대학 도약의 원년"이라고 말했다.

2012년은 경희가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첫 해이다. 그 미지의 길, 미개척의 길을 열어나갈 핵심 기구 중 하나가 미래정책원이다. 미래정책원은 경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 및 실행력 강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기획위원회사무국이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지난 5년간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방향을 모색해 온 경희대학교는 올해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경희의 비전과 목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학문적 권위를 재건해 '21세기 새로운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지구적 봉사과 평화 구현을 통해 '존중받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미래정책원 우응제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의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며 봉사와 실천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21세기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대학의 길을 먼저 찾아내고 개척하는 대학만이 새로운 명문대학, 존경받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 3개 실행팀 구성

경희의 21세기 미래전략 수립과 실행을 추진해나갈 미래정책원은 최근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정책원은 전략팀, 제도·인재팀, 평가팀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전략팀은 메가트렌드와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세계적 명문대학의 정책 등을 조사·분석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경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제도·인재팀은 거버넌스와 인적자원을 개발해 수립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평가팀은 중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적 평가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평가팀은 QS 세계대학평가와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 외부평가뿐 아니라 O&P 리뷰, 부서장 및 부서 성과 보상 등 내부평가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한다. 미래정책원 3개 팀은 피드백을 통해 전략과 추진, 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실현을 이끌게 된다.

2012년은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원년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은 무엇인가. 경희대학교의 화두이자, 창조적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던져야 할 근원적 질문이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지난 5년간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서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탐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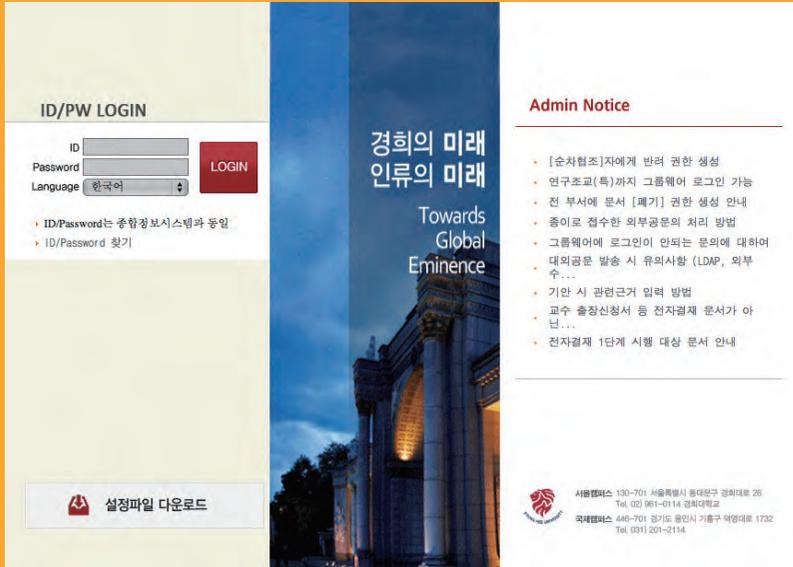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지난해 경희는 전 구성원의 합의로 경희공동체 윤리헌장인 미래협약을 체결했다. 경희의 21세기를 설계하는 미래전략의 틀도 완성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경희대는 2007년 12위에서 2011년 7위(종합대학 5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QS 세계대학 평가에서는 504위에서 245위로 뛰어오르며 전 세계 대학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역시 3위에서 지난해 2위로 올라섰다.

우응제 원장은 지난 3월 8일~9일 개최된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2011년 경희는 미래협약 체결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2012년은 경희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 '디지털 전문행정' 구현

정보지원처, 기안·결재·문서보관 등 행정전산화 실시



지난 3월 2일 보고서·기안·업무연락 등 주요 문서의 소통 및 결재를 종합관리하는 '그룹웨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보지원처는 3월 2일 경희대학교 그룹웨어 시스템(<http://gw.khu.ac.kr>)을 도입했다. 그룹웨어란 조직 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전 구성원의 서류 작성 및 결재, 문서 보관 등 다양한 업무를 종합 처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종합 관리시스템이다. 그룹웨어 도입 1단계인 2012학년도 1학기에는 보고서·기안·업무연락·대외문서 등 주요 문서의 전자결재를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 밖에 간단한 문서나 직원 근태 서류에 대한 전자결재도 처리하기로 했다. 사용 대상은 보직교수를 포함한 전임교원과 전 직원이다.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은 '전문행정을 구현하고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원활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서 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학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부서간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였다. 따라서 이번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은 전문행정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구성원간의 소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그룹웨어구축TF' 운영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1년 1학기부터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총장실 주도로 그룹웨어구축TF가 구성됐다. 김정만 서울부총장과 오택열 국제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조병춘 당시 기획위원회사무국장과 한치근 정보지원처장, 이병수 서울사무처장, 최익환 국제사무처장이 공동TF장을 맡았다. 사무처, 정보지원처, 응용과학대학, 공공대학원이 TF에 참여했다. 그룹웨어구축TF는 지난 1년 동안 그룹웨어 도입에 필요한 업무 파악과 분야별 업무 표준화, 구성원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그룹웨어 도입 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그룹웨어 도입에 따른 구성원 교육계획 및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11월, 선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솔루션 도입 및 구축, 문서 양식 통합, 결재 절차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했다. 올해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캠퍼스별로 각각 2시간씩 5회에 걸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후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정보지원처는 그룹웨어를 구축하면서 '한글 기안기'를 채택, 구성원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문서 처리 표준을 준수해 대외적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

'회의실 예약' 등 편리 기능 많아

전자결재가 도입되면서 변화된 점은 적지 않다. 먼저, 기존의 물리적인 문서 보관철 대신 전자결재 문서함으로 문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정부문서유통시스템 사용으로 문서의 전자유통이 가능해졌다. 또한, 과거 종이문서로 결재했을 때와 달리, 앞으로는 반드시 표준화된 문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도입 초기여서 당분간 불편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룹웨어는 전자결재 외에도 다른 많은 편리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웹 메일을 연동한 문서연락 기능(메뉴명: 이메일), 구성원 전용 게시판과 각종 TF 운영을 지원하는 소통 기능(메뉴명: 게시/협업), 개인 또는 조직의 일정 조율과 회의실 예약 등의 교직원 업무 자원 공유 기능(메뉴명: 일정/자원관리), 결재 문서를 포함한 교내 자료의 전자적 보관 및 공유 기능(메뉴명: 문서관리)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그룹웨어는 조직도 기반의 메신저를 통해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한다.

그룹웨어구축TF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성원의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해 경희의 미래지향적 전문행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미래의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후마니타스칼리지, 문학·철학·역사·생태사상 등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김우창·이태수·최갑수·김종철·최시한·강영안 등 각 분야 석학 초청



후마니타스칼리지 인문학 학술심포지엄은 미래의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사진은 김우창 석좌교수.

후 마니타스칼리지가 1년 동안의 성과 위에서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난 2월 16일~17일 개최된 후마니타스칼리지 제1회 학술심포지엄을 통해서다. 심포지엄은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문학, 철학, 역사, 생태사상, 글쓰기, 사고법 등 6개 인문학 분야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화여대 김우창 석좌교수, 인제대 이태수 석좌교수, 서울대 최갑수 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숙명여대 최시한 교수, 서강대 강영안 교수 등 각 학문분야 석학들이 발표자로 초청됐다.

석학들의 지혜를 교육에 반영

후마니타스칼리지 도정일 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질 높은 교양교육을 젊은 세대의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교양교육 담당 교수들이 학계

원로 교수님들로부터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첫날, 김우창 석좌교수는 “문학이란 덧없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존재의 신비를 포착하는 힘”이라고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학교육은 학생들이 여러 문학작품을 자세하고 구체적인 태도로 읽게 함으로써 작품 속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 삶에서 도덕적·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수 석좌교수는 “철학은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철학교육이 서양에 대한 성지 참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철학적 논의의 역사적 연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철학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돌아보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그 질문 자체를 문제 삼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철학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최갑수 교수는 “역사교육이란 전통과의 화해를 통해 죽은 과거를 역사화·현재화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담당 교수가 자신이 관심과 탁월성을 갖춘 분야에 대해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전하고 이를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것이 역사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둘째 날, 김종철 발행인은 생태학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정치·사회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기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자연의 본성과 리듬에 순응하는 순환적 패턴으로 생활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양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텃밭 만들기’와 같은 실천적 방법을 제시했다.

최시한 교수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기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문과 삶에 대한 자세를 바꿔 자신과 사회를 혁신할 태도와 능력을 기를 때 ‘쓰기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초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표를 두고 단계에 따라 지도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영안 교수는 “교양교육 수업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텍스트 분석과 토론을 통해 타당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장 발표를 연습할 수 있으며, 생각하거나 토론할 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의식하는 훈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앞으로 학술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강사와 석학들 간의 학술적 대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경험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적 명문대학 조건은 브랜드 전략, 내부 혁신”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세 번째 특강



홍콩과학기술대 마이클 핑 기획처장은 설립 20년 만에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한 성장 전략을 들려줬다.

세 계적 명문대학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난 1월 27일 열린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세 번째 특강에서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마이클 핑 기획처장은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이야기, 20년 만에 세계 명문대학이 될 수 있었던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1991년 설립된 홍콩과학기술대학교는 20년 만에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했다. 2011 QS 아시아대학평가 1위, 2011 QS 세계대학평가 40위를 차지했다.

학문적 수월성 추구할 때 대학평가 상승

마이클 핑 기획처장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대학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졌고, 언론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더 이상 대학은 외부평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만을 위한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대학의 핵

심치와 철학, 목표 등을 재확인하고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대학평가 순위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핑 기획처장은 외부 평판이 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대학은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핑 기획처장은 “‘브랜드 전략’과 함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구성원들이 외부평가를 통해 자기성찰을 하고, 학부모·학생 등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대학의 이념과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는 경희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시리즈로 기획된 특강이다. 그동안 강연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LA) 박노희 치과대학장과 예일대학교 스코트 스트로벨 부총장을 초청한 바 있다.

‘학문간 융합’으로 창조적 연구 개발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지난 1월 27일 ‘나노-바이오 융합신기술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Nano-Bio Fusion Technology, RCNB 콜로키움)’이 청운관에서 열렸다.

‘대화, 소통 그리고 융합: 창조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콜로키움은 약학·생물학·인문학·화학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RCNB 정성현 센터장(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은 ‘기초과학과 융합: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정성현 센터장은 선진국 추격형인 국내 연구의 현실을 지적하고 “융합이 화두인 21세기에는 창조형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문간 융합이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융합은 각기 다른 전공 연구자들 간의 대화로 공통점을 끌어내는 소통이 선행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라젠(주) 바이오 연구소 박종화 소장은 ‘개인 유전체 연구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후마니타스칼리지 이만열 교수는 21세기 과학연구기관의 핵심 요소로 사회적 공헌, 국제적인 제휴 구축, 연구기관 내 예술인의 비중 증대 및 역할 부여, 인체공학 및 IT 솔루션을 도입한 연구공간 등을 꼽았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는 서울대 영상의학과 연구팀과의 공동연구 사례를 소개한 뒤 “과학 분야와 의학 분야 간 공동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만 서울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국가융합기술지도를 작성하고 2013년까지 융합기술 분야 R&D 예산 규모를 5조 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만큼 융합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RCNB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20일 설립된 RCNB는 올해 인문학·사회과학·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 교육과학기술부 융합분야 사업인 NCRC(National Core Research Center) 유치를 추진하고, 3기 BK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희,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대교협, 경희의 발전계획과 자율운영체제 높이 평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 모범사례' 추천



지난 2월 15일, 경희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대학평가인증기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 운영 전반의 질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대교협은 대학의 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에서 54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했다. 심사 결과 경희대를 포함해 서울대, 성균관대 등 30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경희의 특성화 선정, 독특하고 선도적"

인증에 앞서 대교협 평가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희대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는 대학 측의 현황 보고와 질의응답, 교육시설 시찰, 구성원 면담 등으로 이뤄졌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서울캠퍼스 대회의실에서 현

상호협의회가 열려 이틀간의 실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진행됐다. 이날 강평에서 경희대는 전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영역 대학 사명 및 발전계획 부문에서 평가위원들은 경희의 자율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타 대학의 모범이 된다"고 호평했다. 그들은 "발전계획수립위원회 중심의 강한 추진력과 운영상의 조율 능력이 돋보인다"면서 "단과대학 중심의 자율운영과 평가 및 보상체계가 타 대학과 차별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탑다운(top down)에서 탈피해 단위부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집중과 연계를 통한 특성화 선정 방식이 독특하고 선도적"이라고 말했다. 3영역 교육 부문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교양교육 모범사례로 추천됐다.

"평화를 중요 가치로 삼은 것이 감명적"

종합 강평에서 평가위원들은 "경희대학교가 교시와 비전에서 평화를 중요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감명적"이라고 말한 후 "후마니타스칼리지 등을 통해 이를 단순한 관념이 아닌 대학 운영과 교육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성원간의 소통 노력과 자율운영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대교협은 인증 획득 2년 후 대학이 인증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까지 모든 대학에 인증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평가에 심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 선정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평가 4년 인증' 획득

경희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은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으로서, 우수 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평가된 대학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된 인증제 평가는 전국 347개 대학(4년제 201개, 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정량평가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대학에 한해 현장 정성평가가 이뤄져 최종 10개(4년제 8개, 전문대 2개) 우수 인증대학이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 인증은 3년간 유지되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시범인증으로 인증기간이 1년간 부여된다.

경희대학교는 인증제 평가에서 해외 파견 학생 비율과 국내 유치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 총원 비율 부문에서 상위 5%,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은 상위 10%로 평가됐다.

한편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치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치의학교육인증평가는 치과대학과 치전원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 대학(원)의 졸업생은 정부로부터 치과의로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됐음을 인정받아 의사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난 2월 1일 공표된 의료법은 정부가 인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 졸업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인증평가는 교육기관 효율성,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5개 영역 20개 항목, 총 55개 문항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4년 인증, 조건부 인증(2년 인증), 인증유예(1년 인증), 인증불가 판정을 받는다. 4년 인증을 획득한 경희대 치전원의 인증은 2015년까지 유효하다.

임영진 교수, 경희대학교병원장 겸 경희의료원장 임명



신경외과 임영진 교수가 경희대학교병원장 겸 제15대 경희의료원장에 임명됐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1982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뇌혈관 질환 및 뇌종양의 감마나이프 수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내 의사 중 감마나이프 최대 시술 기록 보유자로 1992년부터 최근까지 3,000회 이상 시술했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 대한감마나이프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장, 세계신경외과학회 조직위원회 제정위원장, 축구국가대표팀 팀닥터 등을 맡고 있다.

박문서 교수,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장 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임명



이비인후과 박문서 교수가 제3대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장 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임명됐다. 1978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박문서 병원장은 난청 및 이명 전문가로 접착제를 이용한 귀 수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가혈액 접착제 활용 수술 기록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의 난청 부문 명의(2000년), EBS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2010년)에 선정되는 등 언론을 통해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서정섭·김성호·문재인 동문, '자랑스러운 경희인상' 수상



서정섭(법학 58학번), 김성호(신문방송학 65학번), 문재인(법학 72학번) 동문이 지난 1월 12일 총동문회가 개최

한 2012년 신년교례회에서 '자랑스러운 경희인상'을 수상했다.(사진 왼쪽부터) 서정섭 동문은 현재 동신광유리공업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총동문회 자문위원, 법과대학동문장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김성호 동문은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상임부회장,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총동문장학회 이사 등을 지내고 현재 제양항공해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동문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노무현대단 이사장 및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정치외교학과 윤지환 교수, 한국학술연구원 '제2회 김명희 논문상' 수상

지난 3월 15일 정치외교학과 윤지환 교수가 '제2회 김명희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논문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설립자인 김명희 박사의 한국학 발전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연구원의 영문학술지 KOREA OBSERVER(SSCI 등재지)에 1년 동안 게재된 논문 중 최고의 논문 저자를 매년 선정해 발표한다.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2,5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사 3인, 국제학회 석권

지난 2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한국·대만·일본·싱가포르 국제방사선사학술대회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박명현·정유찬·김재열 방사선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석권했다.

박명현 방사선사는 '코일-색전술 추적 검사에서 투시 하 Single Shot Exposure의 유용성 : Simple X-ray와 비교평가'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우수

상을 수상한 정유찬 방사선사는 'CR System에서 신호대잡음비(SNR)를 고려한 입사선량 경감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포스터 부문에 참여한 김재열 방사선사는 'knee Laurine 검사 시 자체 제작 Protecting Device의 유용성'을 발표해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명현 방사선사는 오는 4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3편의 포스터 전시와 6편의 국제논문, CT & MRI, Angio 각 10편, 일반 촬영 및 투시조영 8편 등 약 40여 편이 소개됐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총 5편의 논문과 3편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 제1회 서울시 '좋은빛상' 대상 수상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가 지난 3월 6일 제1회 서울시 '좋은빛상' 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태 교수는 빛공해에 관한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 활동을 통해 빛공해 방지법 제정에 초석을 마련하는 등 좋은 빛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는 125년 전 국내에서 전등을 최초로 사용한 날(1887년 3월 6일)을 기념하고, 빛을 공해 없이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좋은빛상'을 제정, 올해 첫 수상자 8명을 선정했다.

홍성원 학생, 경기도 교육감기 경희배 스키대회 3관왕

홍성원(스포츠키도학 09학번) 학생이 지난 1월 2일~3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교육감기 경희배 스키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홍성원 학생은 여대부 회전, 대회전, 복합 부문에서 각각 4초 03, 32초 05, 1분 20초 08의 기록으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해 기쁘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병원 이길연 교수팀, '우수 포스터상' 수상



경희대학교병원 이길연 교수팀이 지난 3월 10일 2012년 대한임상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장암 세포주에서 항암제 유도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 과발현 현상' 논문으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이길연 교수팀은 논문을 통해 "항암제를 한 가지만 저농도로 사용할 경우 대장암 세포주에서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가 오히려 과발현하는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현상은 항암제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할 경우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길연 교수는 최근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되지 않은 외국의 외과의사들을 위해 국제학술대회에서 대장 복강경 수술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는 등 복강경 수술법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강진 학생, 경향신문·서울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 당선

이강진(국어국문학 07학번) 학생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의 2012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을 동시 석권했다. 이강진 학생은 시와 정치에 관한 평론 <위기의 시대에 대한 두 가지 처방-송경동과 장석원 시의 정치적 가능성>과 <종언의 시대를 살아가기: '시와 정치'는 무엇이었는가>를 각각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에 투고했다. <위기의 시대에 대한 두 가지 처방-송경동과 장석원 시의 정치적 가능성>은 '정치적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송경동과 장석원의 시를 검토한 글로, 작품 해설 이상의 의욕을 갖고 당대 비평의 쟁점과 대면했다는 점, 작품 논평과 이론적 논변을 결합시켜 패기 있게 밀고 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신문은 문단의 모순을 통렬히 비판한 이강진 학생의 작품은 신인다운 패기와 문제의식으로 메타비평에 접근, 논쟁을 따라가거나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나름의 시각으로 논지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졸업생 5,902명 배출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15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거행됐다.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조인원 총장,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 이봉관 총동문회장 및 교내외 귀빈과 경희가족 3,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2011학년도 학위취득자는 박사 246명, 석사 1,361명, 학사 4,295명이며, 특별과정 수료자 181명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다. 총장상의 영에는 박다운(컨벤션경영학 08학번) 학생 등 14명의 졸업생에게 돌아갔다.

우수학위논문문상은 외국인 유학생인 브로비카 안나(국어국문학 05학번) 학생과 쿠마란 베리알파(화학공학 08학번) 학생을 포함해 총 7명이 수상했다.

조인원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대학에서 인간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근간으로 끊임없이 '더 나옴'을 향해 나아가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열린 학문과 진리의 전당을 추구하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운 결합, 자아와 세계의 창조적인 결합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온 경희는 내 삶, 그리고 그 삶을 관조하는 '문화세계'와 함께 더 큰 개인, 더 큰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인원 총장은 "졸업생의 앞날에 경희의 전통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자신과 사회, 인류의 미래를 꿈꾸며 타자와 자연에 열린 또 다른 삶의 주역이 될 것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답사를 한 박다운

학생은 "그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모교에 감사한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 자랑스러운 경희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12 1학기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2012학년도 1학기 순수외국인전형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국제교류처 주관으로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설악산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울과 국제캠퍼스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총 15개 국가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는 서울캠퍼스 151명(신입생 142명, 편입생 9명), 국제캠퍼스 37명(신입생 30명, 편입생 7명) 등 총 188명이었다.

오리엔테이션 첫 날인 2월 29일에는 학사, 비자, 장학, 생활 등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위해 숙지해야 할 필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경희 골든벨 퀴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희대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게 했으며, '멋진 경희인이 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조별 활동도 진행했다.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전달하고 교우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단체 생활을 통한 협동심을 길러주고자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소 영문학술지 《OPEM》, Scopus 등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OPEM》이 지난 2월 세계 최대 인용색인(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 등재됐다.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창간된 최초의 영문학술지 《OPEM》은 1년에 4회, 회당 10편기량의 논문이 발표된다. Scopus는 엘스비어(ELSEVIER)사가 제공하는 우수연구논문과 양질의 웹 기반 정보들로 이뤄진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이며, 한국연구재단은 Scopus 등재 저널을 SCI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배현수 교수(한의학연구소 소장)는 "《OPEM》은 창간 후 국제적으로 저명한 편집위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저자들로부터 논문 투고를 늘려온 점이 Scopus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구소는 《OPEM》 창간 이래 현재까지 500여 편의 한의학 관련 논문을 출간하면서 한의학과 근대 실험의학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PEM》에는 SCI 등재를 목표로 56명의 국내외 편집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KOICA-경희대학교 한국어 국제 컨퍼런스 개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꿈을 이루어주는 한국어'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지난 20년간 진행된 KOICA 한국어 과정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어 및 한류 확산에 기여한 바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23일에는 베트남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식전 행사를 시



작으로 개막식과 축하 공연, 한국 문화 OX 퀴즈, K-Pop 경연대회,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 둘째 날에는 한국어 교육 특강 및 우수 사례 발표,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한국어 시범 수업, 우수 우수 성과 사례 발표, 한국어와 국제협력 관련 토론 등이 이어졌다. 경희대학교는 1998년부터 KOICA 한국어 과정을 운영해 34개국 40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KOICA 우수 연구기관에 선정돼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게 됐다.

후마니타스칼리지·수원시, '인문학 교육' 협약식 개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수원시는 지난 2월 28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공직자 인문학 교육'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도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소속 교수들은 수원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역사, 문화, 철학에 대한 인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평가 서울캠퍼스 '최우수', 국제 '우수'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1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에서 서울캠퍼스가 '최우수', 국제캠퍼스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3가지 영역에 걸쳐 심사가 이뤄졌으며, 배점은 선발 영역 6점, 교수·학습 영역 44점, 시설·설비 영역 50점이었다.

선발 영역의 평가 항목은 장애학생 특별전형제 실시 여부와 평가 대상 학교에 지원한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한 시험 편의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교수·학습 영역은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 체계와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비 여부 등을 심사했고, 시설·설비 영역은 장애학생을 배려한 학교 내부 시설과 복도 등을 평가해 점수가 매겨졌다.

심사 결과, 서울캠퍼스는 90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영역별로는 선발에서 '우수', 교수·학습에서 '최우수', 시설·설비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캠퍼스는 지난 평가에 비해 점수는 다소 상승했지만, 총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우수'에 머물렀다.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
연구중심병원 유치 워크숍 개최**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은 지난 1월 31일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 유치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중심병원 전략'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유명철 의무부총장은 "진료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병원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향후 병원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원이 생존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연구와 개

발에 매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희 WCU사업단·UC 버클리,
큐브넷 '시네마' 공동 제작**

경희대학교 월드클래스유니버시티(WCU) 달케도 우주탐사사업단이 UC 버클리와 공동으로 올해 우주로 올라갈 한·미 합작 초소형 위성(CubeSat) '시네마'를 설계 및 제작하고 있다. WCU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모두 3기가 발사될 '시네마'는 지구 상공 800km에서 이온과 전자, 중성입자 등 우주에 떠도는 입자를 검출하고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며, 우주공간에서 태양이 토해내는 수많은 입자를 추적해 태양 활동의 영향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1기는 UC 버클리가 제작한 것으로 오는 6~8월 델타로켓에 실려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경희대 WCU사업단이 제작 중인 2기는 9월 드네프르 로켓에 탑재, 러시아에서 발사된다. 경희대 WCU사업단장인 우주과학과 이동훈 교수는 "시네마 3기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우주공간을 입체적으로 찍는 만큼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며, "시네마에 달린 검출기 스타인을 1,000개 이상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검출기로 만들면 향후 달이나 태양 탐사 위성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학년도 신입생 환영행사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

'2012학년도 신입생 환영행사'가 지난 2월 29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신입생, 재학생, 학부모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서울캠퍼스 2,607명, 국제캠퍼스 2,740명 등 총 5,347명이다. 단과대학별 신입생 환영행사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치러진 전체 환영행사는 박지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지하 총학생회장은 "대학에 왜 왔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대학생활 동안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던지고, 지금이 아니면, 자신이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을 꼭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은 "지난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되면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면서 "이는 교육다운 교육에 대한 갈증, 그

리움, 희망을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최소한이나마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도정일 대학장은 "대학생이라면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숙한 지성인,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탐구자,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발견자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이 대학, 특히 교양교육의 역할"이라며 "후마니타스칼리지를 통해 그러한 안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생 환영행사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등 경희대학교가 실천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참여방법 안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 총유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등 학생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입생 환영회는 꿈과 희망을 담은 비행기 날리기, 무용학부와 관현악과, 성악과, 댄스동아리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 Story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정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되었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

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2년 2월 29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천여만원을 돌파했고, 2012년 2월 현재 21억여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조성 금액 : 2,112,603,606원
- 참여 인원 : 1,810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를 통해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 10호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지난 2012년 2월 18일 91세를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조영식 박사는 30세 때인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한 뒤 '문화세계의 창조이념 아래 경희대학교를 '학문과 평화'을 요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미원 조영식 박사는 교육자이자 사상가이며 평화운동가였습니다. 특히 1981년에는 UN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도록 최초로 제안, 인류가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는 특집 형식으로 미원 조영식 박사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밖에도 경희가 21세기 새로운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방향을 모색한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천회, 경희 의료기관의 '비전 2020' 추진 상황을 점검한 의료기관 연천회, 청운관 식당 재개장을 비롯한 구성원 복지 향상, 후마니티스칼리지 인문학 심포지엄 개최 등 "대학다운 미래대학" 건설을 위한 경희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제10호 2012년 4월 2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sd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